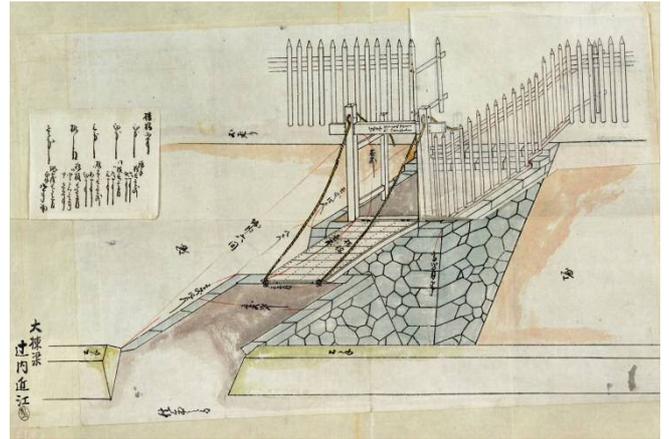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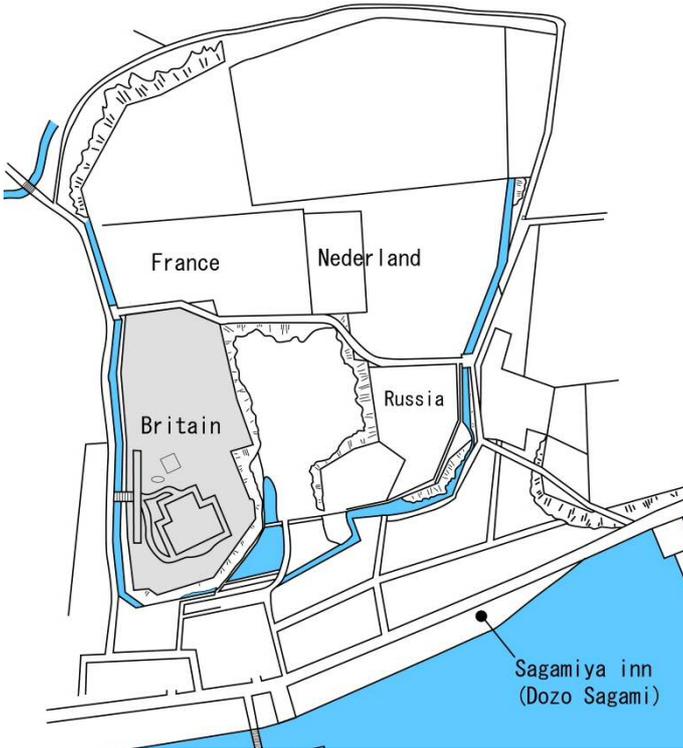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고텐야마의 외국 공사관과 방화 사건



▲고텐야마 영국 공사관의 도개교(「시나가와의 5 개국 공사관 공사 도면」에 수록된 그림. 도쿄 국립 중앙도서관 도쿄시료 문고 소장)

▲고텐야마의 외국 공사관 배치도(도쿄 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고텐야마 공사관 지도」를 토대로 작성)

개항과 외국인 습격 사건

1853년의 페리 함대 내항을 계기로 이이나오스케의 주도 하에 에도 막부는 1858년에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조약을 맺고, 이듬해부터 나가사키(지금의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코다테(지금의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요코하마(지금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세 항구를 개항하고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로 인한 물품 부족 등이 물가 급등을 초래하여, 막부에 반감을 품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황을 숭상하고 외국인을 배척한다는 인식 하에 결집하여, 1860년 3월에 이이나오스케를 암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1860년 미국 통역관 휴스켄 암살 사건, 1861년 영국 공사관 습격 사건 등 외국인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텐야마에 외국 공사관을 건설

거듭되는 외국인 습격 사건으로 외국 여러 나라는 안전하고 편리한 토지에 공사관을

건설하도록 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막부는 시나가와의 고텐야마에 공사관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고텐야마의 공사관은
 서양풍 건물로, 주위에 깊은 해자와 높은
 울타리를 둘러치고, 도개교를 설치하는 등
 습격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설비는
 각 나라가 부담하였으며, 최초로 건설된 것은
 고텐야마 동남쪽의 영국 공사관이었습니다.

벗꽃 명소로 친숙한 고텐야마에 외국의
 공사관을 세우는 것은 서민의 반감도
 샀습니다. 시나가와 역참도 고텐야마의 유서와
 서민의 쉼터임을 이유로 들며, 건설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공사관 건설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외교관 어니스트
 사토우는 그의 저서에서 공사관을 빨리
 완공시켜 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서술했는데,
 습격을 경계하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조슈(지금의 야마구치현 하기시 주변)의
 무사들에 의한 영국 공사관 방화



▲1920년대 말의 도조사가미

사토우가 경계한 대로 영국 공사관은
 외국인 배척파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습격을
 실행한 것은 다카스기 신사쿠, 구사카 겐즈이,
 이노우에 가오루, 이토 히로부미 등 20대
 초반의 조슈(지금의 야마구치현 하기시
 주변)의 젊은 무사 13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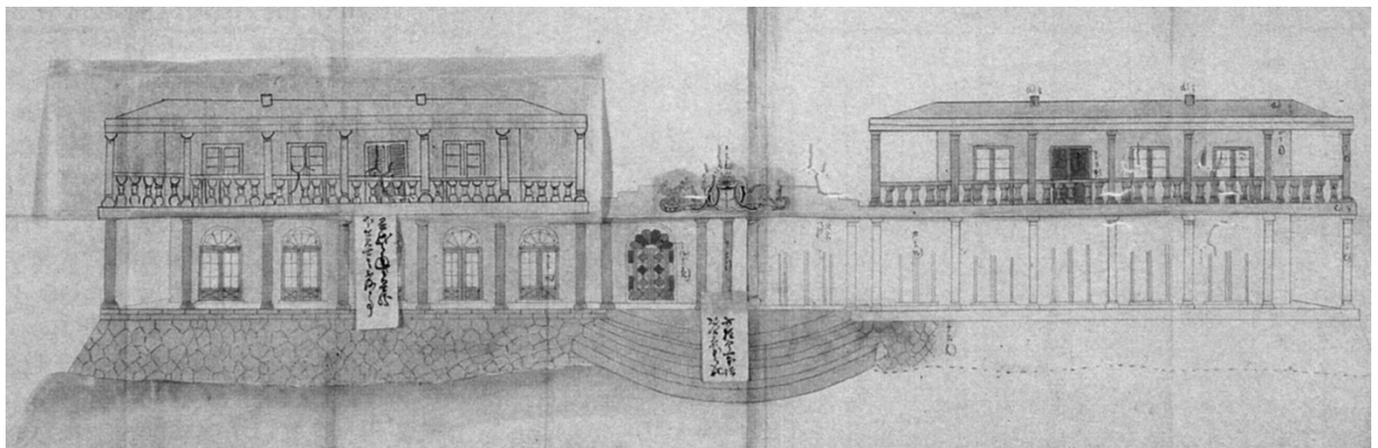
1862년 12월 12일 오전 1시에 그들은
 시나가와 역참의 도조사가미에 집결, 완공을
 앞둔 영국 공사관에 잠입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훗날 메이지 정부의 주요 인사가
 된 이노우에 및 이토가 남긴 기록에는
 그때의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해자와 울타리를 넘어 건물에
 침입하여 덧문짝 등을 쌓아 놓고 폭탄에
 불을 붙여 전소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다카스기 및 구사카는 시바우라(지금의 도쿄도 미나토구)의 여인숙에서 활활 타는 공사관을 바라보며 술잔치를 벌였고, 서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토는 일본 최초의 내각 총리대신을, 이노우에는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참고로 이토의 묘소는 도쿄도 시나가와구 니시오이에 있습니다(평소에는 비공개).

그 후의 그들

구사카는 1864년 7월, 아이즈번(지금의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 주변), 사쓰마번(주로 지금의 가고시마현)과 조슈번 사이에 일어난 무력 충돌로 전사했습니다. 다카스기는 조슈번의 주도권을 잡고 조슈번 내에서 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막부 타도를 목표로 했으나, 1867년에 병사했습니다. 이토 및 이노우에는 메이지 시대까지 살아남아



▲고텐야마 영국 공사관 측면도 1861년 8월(도쿄 대학 사료편찬소 소장)